

회계지식의 수준에 따른 회계투명성 인식

손 혁*
강 순 경**
백 태 영***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회계지식의 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다. 회계지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은 회계를 배우지 않더라도 응답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었으며, 재무회계 및 회계감사 분야의 기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백분위로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총 28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회귀모형을 통해 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대상자의 회계지식의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6.11점이었으며 문항 중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오해가 컸다. 둘째, 설문대상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은 100분위로 환산한 경우 74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이는 스위스 국제경제개발대학원(IMD)에서 조사한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인 최하위권과 괴리가 있다. 셋째,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원리를 수강하거나 경제면에 관심이 많은 설문대상자일수록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넷째, 설문대상자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투명성의 주요 원인이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외부감사인 등 감시기구의 역할 미흡으로 지적했다. 본 연구는 회계지식의 수준이 회계투명성의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회계교육, 회계지식, 회계투명성, 설문연구

1. 서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회계지식의 수준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회계정보는 기업 내부자와 외부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Healy & Palepu, 2001). 하지만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자인 경영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편향(bias)이 반영된 회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Healy, 1985; Guidry et al., 1999).

경영자의 편향이 반영될수록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하락하므로 이러한 왜곡표시를 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다양한 내부감시기구, 규제기관 등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왜곡표시가 없더라도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충분한 회계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현실에서 의문이 있다(Lee, 2001; 최은실 외, 2014).

물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정교한(sophisticated) 회계분석을 수행하고 일반투자자들도 재무분석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논문접수일: 2021. 08. 27. 1차 수정본 접수일: 2021. 11. 23. 게재확정일: 2021. 11. 30.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hshawn@kmu.ac.kr), 제1저자

** 계명대학교 경영학박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kss30@korea.kr), 공동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tyapaik@skku.edu), 교신저자

대다수의 개인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의 경우 회계 교육을 실질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충분한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구승환, 장성용, 2012). 심지어는 회계교육을 받지 않은 이해관계자는 회계와 관련된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Albrecht & Sack, 2000). 이처럼 이해관계자의 회계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보비대칭을 심화시켜 경영자의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monitoring)기능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Dhaliwal et al., 2010), 회계투명성의 정확한 인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Angluin & Scapens, 2000).

한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순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국가 중 순위가 낮은 편이다. 회계투명성의 낮은 수준과 하락 추세는 우리나라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적 할인현상(Korea discount)을 가져오는 요소로 지적된다(이호영 외, 2013; 심호식 외, 2016).

반면,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순위가 낮은 이유는 설문조사에 대한 방식과 오해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장지인 외, 2002). 실제로 회계의 보고품질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순위는 설문조사 결과보다 양호한 편이다. 예를 들어,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의 수준을 측정할 결과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품질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했으며(강나라, 최관, 2020), 재량적 발생액 이외의 다양한 회계투명성을 대변하는 측정치로 평가하였을 때도 중상위권을 유지하였다(심호식 외, 2016).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부터 최근까지 발

생한 국내의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주요 설문대상자인 최고경영자(CEO)나 최고 재무책임자(CFO) 및 감사인 등 회계전문가에게 깊이 지각되어 IMD나 WEF의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심호식 외, 2016).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실제로는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와 회계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장지인 외, 2002; 정도진 외, 2010).

이를 종합하면, 설문대상자의 회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회계투명성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투명성 순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설문대상자의 회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및 주관적 인식 노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편이다. 즉 설문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 회계투명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대상자의 회계지식 수준과 회계투명성 연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지식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학점이나 학위 및 다양한 회계자격증이 회계지식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는 신호(signal)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중의 회계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회계지식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했다. 해당 문항들은 회계를 배우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누구나 응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료한 진위형 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재무회계 및 회계감사 분야의 기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문항은 회계지식의 세부적인 분야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인 회계지식의 수준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측정된 회계지식의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였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백분위로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총 28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주로 대학교 재학생이었으며,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전공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대상자의 회계지식의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6.11점이었다. 특히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오해로, 설문대상자의 70.1%가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이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의 양호함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설문대상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인식수준은 100분위로 환산한 경우 74위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조사한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인 최하위권과 괴리가 있었다. 셋째,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회계원리를 수강하거나 경제 기사를 많이 읽을수록 회계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넷째, 설문대상자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투명성의 주요 이유에 대해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70.1%), 외부감사인을 포함한 감시기구의 역할 미흡(68.7%), 양적성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65.1%)라고 답했다.

회계지식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지식의 수준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 국제기구가 설문조사로 측정한 회계투명성 순위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IMD의 설문조사 대상은 주로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은 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구성되어 있다. 즉 회계의 전반적인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과거 회계부정 사건의

인식과 재발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대중의 회계지식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을 투영(projectio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투명성 설문조사와 통계적 측정치 간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설명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가 측정한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투명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중의 회계지식에 대한 검사도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중이 회계교육을 접할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즉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회계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과거 16~17세기 네덜란드의 번영이 복식부기를 가르치는 회계교육의 집중적인 양성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비추어볼 때(Soll, 2014), 회계교육의 일반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의 정확한 인식에도 일조할 것이다(Angluin & Scapens, 2000; 장용운, 2009; 권상호 외, 2014).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회계교육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선행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제 3장은 연구방법론과 표본의 선정방식을 제시한다. 제 4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제 5장에서는 연구결론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회계투명성의 순위변화

회계투명성이란 관측 가능한 회계이익과 관찰은

어렵지만 진실한 경제적 이익의 일치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Bhattacharya et al., 2003).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은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측정하여 매년 공시하고 있다. <그림 1>은 IMD와 WEF가 측정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순위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측정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제시한 것이다. IMD에서 측정한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3년 이전에는 40~50위권(전체 조사대상 60여국)에서 이후 2016년 61개국 중 61위, 2017년 63개국 중 63위, 2018년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WEF의 순위는 2013년 91위(전체 조사대상 140여국)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63위, 2018년 50위까지 상승했다. TI의 부패인식지수는 2010년 39위(전체 조사대상 180여국)에서 2016년 52위로 하락했다가 2018년 45위로 약간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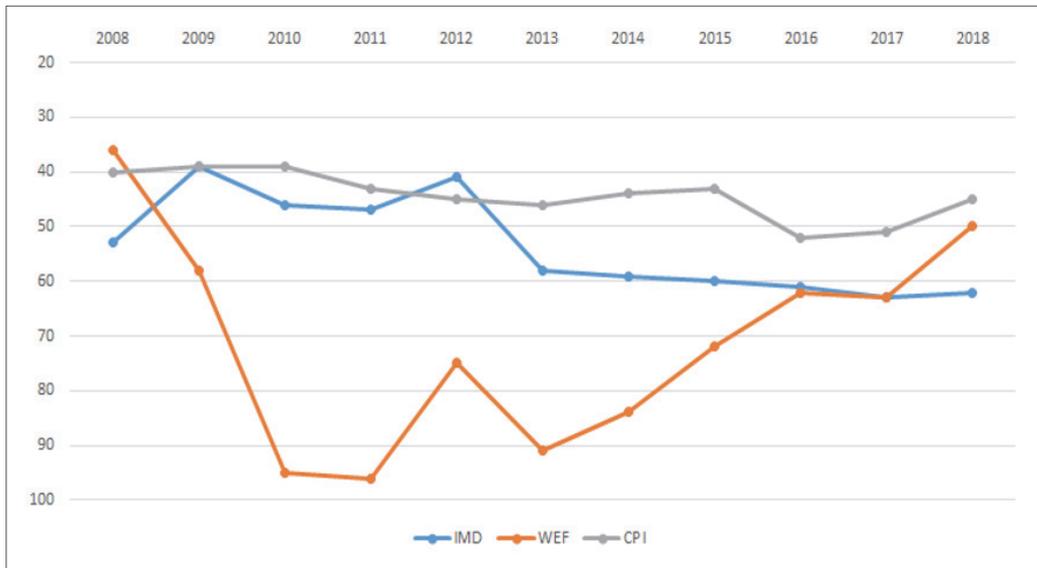
최근 순위만 본다면 IMD의 경우 조사대상국 최하위 수준이나 WEF와 TI는 중상위권 수준이라 혼동

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MD는 조사대상국이 60여국으로 대다수 OECD 가입국가 및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WEF나 TI의 순위를 OECD 국가로 한정하는 경우 CPI는 2017년 35개국 중 29위, 2018년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임을 알 수 있다.

2.2 회계투명성에 대한 연구

IMD와 WEF의 조사는 주로 국제적 경험을 갖고 있는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한 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설문으로 이루어진다. IMD는 설문대상자에게 감사와 회계관행의 적절한 실행여부를, WEF는 회계감사기준과 공시기준의 강도의 수준을 묻는다.

회계투명성이 낮게 평가되면 자본비용이 커지고 대외신인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이호영 외, 2013; 노정희, 최종서, 2016). 하지만 IMD와 WEF가 평가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현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 IMD와 WEF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순위와 부패지수(CPI)의 순위 변화(2008~2018)

PricewaterhouseCoopers(PwC)는 2001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35개국 중 35위로 평가했지만 설문지를 국문으로 전환하고 표본대상을 확대했을 때 순위가 21위로 상승했다(장지인 외, 2002). 이후 정도진 외(2010)는 장지인 외(2002)의 방법을 준용한 결과 회계투명성이 오히려 점점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설문조사 이외의 방식, 즉 재정적 발생액 및 손실회피보고 등 재무보고품질 측정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강나라, 최관, 2020), 발생액의 품질, 산업 내 회계부정의 전염효과(contagion) 등 다양한 측정치를 사용한 결과 중상위권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심호식 외, 2016). 이처럼 IMD나 WEF의 회계투명성 순위와 연구에서 나타난 투명성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IMD와 WEF가 수행한 설문과 우리나라의 각 연구가 수행한 설문대상자의 구성이 다르거나 인식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심호식 외, 2016).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와 재무분석가는 경영자에 비해 회계투명성을 낮게 평가했다(정도진 외, 2010). 또한 IMD와 WEF의 설문조사 방식의 경우 단일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근거하므로 설문대상자의 사회적 선망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나 고발자 편향(whistle blowing bias)이 반영될 수 있다(심호식 외, 2016).

둘째, 우리나라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박종성, 이은철, 2003). 따라서 경영자나 최고재무책임자의 과거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억으로 인해 설문대상자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IMD나 WEF의 경우 외국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평가하므로 설문대

상자는 언론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심호식 외, 2016).

셋째,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등 기업이 얻는 유인이 크지 않았다(심호식 외, 2016). 즉 경영자나 최고재무책임자에게 회계투명성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설문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2011년에 원칙중심(principle-based)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였다. 원칙중심의 회계는 경영자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경영자와 감사인, 규제당국, 외부정보이용자와의 의견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영자가 국제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의도적인 왜곡표시를 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이나 내부감시기구 및 규제기관이 이를 감시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보고품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Ball, 2006). 실제로 기업, 외부감사인 등의 설문조사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보고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요한 요인은 국제회계기준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집단 간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이라고 응답되었다(손혁 외, 2019).

다섯째, 회계투명성에 대한 홍보의 부재가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투명성에 대한 홍보와 회계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장지인 외, 2002; 정도진 외, 2010), 오히려 언론 등은 회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심호식 외, 2016).

지금까지 IMD와 WEF가 평가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수준이 실질과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를 살펴보고 그 차이의 이유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은 과거에 비해 제도와 규제강화 측면에서 강화되었지만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투명성은 정경유착, 지배

구조 등의 문제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회계 투명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종서, 2017). 또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IMD 조사 대상 60개국의 회계투명성 평가지수와 이익에 대한 공격적 보고, 손실회피, 이익유연화 등 다양한 회계 투명성 측정치 간에 유의한 정(+)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노정희, 최종서, 2016). 이 결과는 IMD와 WEF가 평가한 회계투명성이 실질적인 재무보고의 품질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3 가설의 도출

IMD와 WEF의 설문조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평가는 단편적이고 주관적 지각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심호식 외, 2016), 한편으로는 국가의 회계투명성을 대변하고 있다(노정희, 최종서, 2016). 연구자들은 설문대상자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평가 측정치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장지인 외, 2002; 정도진 외, 2010) 실제로도 회계투명성 측정치들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심호식 외, 2016; 강나라, 최관, 2020).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무자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연구자들이 간과했다는 것이다(최종서, 2017). 즉 IMD나 WEF에서 조사한 회계투명성은 회계의 법과 제도의 개선에 따른 회계투명성의 개선 밖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심호식 외, 2016; 최종서, 2017). 따라서 IMD나 WEF가 보고한 회계투명성의 측정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회계투명성의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설문대상자의 회계투명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최종서, 2017).

한편, 설문대상자는 회계투명성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내·외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언론에 제시되는 회계투명성의 노출 정도, 회계에 대한 지식 수준은 실제로 회계투명성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박종성, 이은철, 2003). 특히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가 회계지식이 높은 회계전문가인 경우 내부자와 외부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경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Angluin & Scapens, 2000; Dhaliwal et al., 2010). 즉 설문대상자가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 사회 전반에 대한 회계전문가인 경우 감시수준이 높아지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회계부정 사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심호식 외, 2016).

연구가설: 회계지식의 수준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정(+)의 연관성이 있다.

III. 연구방법론

3.1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개발

반설문대상자의 회계지식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설문대상자의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거나 회계과목 시험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회계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은 주로 설문대상자의 시험성적 또는 주관적 만족도를 평정하여 교육의 성과향상의 근거로 사용한다. 하지만 시험성과와 주관적 만족도는 인구통계학

적 요인, 시간에 따른 학습효과, 교육자와 학습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계지식의 수준과 회계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권상호 외(2014)는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회계정보 및 국제회계기준의 이해, 기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를 아는지 여부 등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회계학습이 수행된 상태에서 설문대상자의 지식수준을 확인하므로 학습효과 등 다양한 통제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회계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만들기 위해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를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즉 숫자나 분개, 계산문제를 배제하고 회계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설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문장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질문의 오해로 인한 측정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재무회계와 회계감사의 기초적인 상식 수준의 질문을 이용했다. 넷째,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문항의 수를 10개로 한정했다. 다섯째,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회계교수

및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

〈표 1〉은 본 설문지에서 사용한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설문대상자의 응답스타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김상욱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대상자의 응답편향(response bias)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즉 심호식 외(2016)가 언급한 사회적 선망 편향 및 내부고발자 편향, 극단적이거나 중립적인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문항을 진위형으로 만들었다. 또한 설문대상자가 묵인(acquiescent) 또는 저항 응답을 하지 않고 순서효과(order effect)가 나타나지 않도록 질문의 순서와 진위여부는 설문대상자에게 무작위로 제시되었다.¹⁾

설문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대상자에게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통제변수(회계원리 수강여부, 경영대학, 주당 신문의 경제기사를 읽는 횟수)를 기재하도록 했다. 그 다음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한다.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순위를 답변하도록 한다. 설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²⁾ IMD의 2016년과 2017년의 회계투명성의 실제 순위를 설문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왜 낮은지 그 이유를 5개 보기 중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표 1〉 회계지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 (설문지 수정)

1. 회계부서는 현금의 출납과 보관을 동시에 담당한다.
2. 재무제표 작성은 회사와 공인회계사가 함께 수행한다.
3. 자산은 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4.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회사의 기관인 감사를 의미한다.
5.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은 공인회계사에게 있다.
6. 원가는 비용과 동일한 의미이다.
7. 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8. 선수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9.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뜻한다.
10. 수익은 이익에서 비용을 차감한다.

1) 〈표 1〉의 문항은 전부 틀린 문항으로 제시한 경우의 예시이다.

2) 설문대상자에게 IMD의 회계투명성 순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열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 즉 회계지식의 수준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TRSP_i = \beta_0 + \beta_1 GRADE_i + \beta_2 GENDER_i + \beta_3 LEC_i + \beta_4 GRAD + \beta_5 BA_i + \beta_6 NEWS_i + \beta_7 AGE_i + \varepsilon_i \dots\dots\dots (1)$$

- TRSP =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우리나라 투명성에 대한 수준;
- GRADE = <표 1>에서 제시된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점수의 합계;
- GENDER = 설문대상자의 성별,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 LEC = 회계원리를 수강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GRAD = 현재 재학 중인 학년 (1-4) 및 졸업자 (5);
- BA = 경영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NEWS = 경제신문기사를 일주일에 몇 번 읽는지 그 횟수;
- AGE = 설문대상자의 나이;

회계투명성(TRSP)은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수준이다. 2017년 현재 조사 대상 국가가 100개 국가로 한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를 설문대상자에게 질문했다. 즉 설문대상자가 1을 기재하는 경우 회계투명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100은 가장 낮은 값이다. 회계지식의 수준(GRADE)은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한 점수의 합계이다. 질문은 개당 1점으로 총 10점이 만점이다.

한편, 설문조사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통제

해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설문지에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반영했다. 설문대상자의 성별(GENDER)을 반영하였으며, 회계의 기본지식을 통제하기 위해 회계원리의 수강여부(LEC)를 추가했다. 또한 대학생 학년과 졸업자를 통제하기 위해 (GRAD)를 추가했다. 각 학년에 따라 1~4의 값을 가지며 졸업자의 경우 5로 기재하도록 했다. 경영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BA) 회계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했고, 경제신문기사를 일주일동안 몇 번을 읽는지 그 횟수(NEWS)와 설문대상자의 연령(AGE)을 추가했다.

3.3 표본의 선정

설문은 설문조사 시점의 대학생과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17년 3월 초에 시행되었다.³⁾ 총 설문지는 294부가 학교 내에서 배부되어 100%를 회수했으나, 표기가 잘못되는 등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 대상 설문지는 총 281부이다. <표 2>에서 표본 설문대상자의 성별, 경영전공여부 분포를 알 수 있다.

<표 2> 표본의 구성: 성별 및 전공별

설문대상자의 인적사항		남성 (N=107)		여성 (N=174)		총 인원수 (N=281)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경영대학 소속 여부	경영대학 소속	89	83%	138	79%	227	81%
	경영대학 소속이 아님	18	17%	36	21%	54	19%
	합계	107	100%	174	100%	281	100%

3) 회계지식의 수준이 학습효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기를 처음 시작할 때 설문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4.1 기술적 통계량

4.1.1 회계지식의 수준 측정도구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표 3〉은 설문대상자의 회계지식의 수준을 묻는 10개의 문항(Q1~Q10)의 오답률과 점수합계를 제시했다. 진위형 문항의 점수 총계는 10점이다. 설문대상자의 각 문항의 평균 오답률은 38.9%이다. 가장 낮은 오답률을 나타내는 문항은 3번이었으며, 반면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문항은 9번으로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에 대한 오해가 컸다. 응답자의 회계지식에 대한 평균점수(GRADE)는 6.110이다. 각 문항 간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는 Cronbach Alpha의 값은 0.6279로, 일정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Cronbach Alpha의 통상값인 0.6보다 크므로 문항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⁴⁾

4.1.2 투명성의 인식수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

〈표 4〉에서 설문대상자의 투명성의 주관적 인식수

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을 제시했다. 설문대상자가 판단하는 우리나라 투명성의 주관적 인식수준(TRSP)의 평균(중위수)은 74.174(80.000)로 100분위 중 중하위권이였다.⁵⁾ 이는 IMD가 측정한 2016년과 2017년의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권과 차이를 나타낸다. 설문대상자의 성별(GENDER)의 평균은 38.1%로 남학생 비중이 여학생보다 낮았다. 회계원리를 수강한 학생(LEC)의 평균은 0.879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회계원리 수업을 접한 경험이 있다. 학년(GRAD)은 평균 4.025로 응답자 중 4학년 비중이 높았으며, 경영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의 비중(BA)은 80.7%였다. 또한 경제신문기사를 일주일에 읽는 횟수(NEWS)는 평균 0.36회이었으며 응답자의 나이(AGE)의 평균은 21.3세이었다.

4.2 상관분석

〈표 5〉는 측정 변수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항목의 상관계수와 괄호 안에 p 값을 보고한다. 회계투명성(TRSP)과 회계지식의 수준(GRADE)은 유의한 정(+)의 연관성이 있다. 즉, 회계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의 순위가 낮았다. 응답자 개인별 회계지식의 수준(GRADE)과 회계원리 수강여부(LEC) 및 경영대학 재학 및

〈표 3〉 설문대상자의 회계정보 인식에 대한 기술적통계량 (N=281)

변수명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합계
평균	0.438	0.370	0.203	0.367	0.256	0.381	0.441	0.217	0.701	0.516	6.110
표준편차	0.497	0.484	0.403	0.483	0.437	0.486	0.497	0.413	0.459	0.501	2.241

1) 변수의 정의 : Q1~Q10=회계지식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진위형 문항의 오류비율, GRADE=설문점수의 합계, 문항당 점수는 각 1점이며 총 10점 만점;

4) 문항총점상관(correlation with total)은 대체적으로 0.3 이상의 값을 가졌으나, 문항 6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졌다. 따라서 해당 문항은 추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설문대상자가 판단하는 우리나라 투명성의 주관적 인식수준(TRSP)의 3분위수와 최댓값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투명성에 대한 점수를 낮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추후 연구에서 리커트 척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이 될 수 있다.

〈표 4〉 설문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기술적통계량 (N=281)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댓값
TRSP	74.174	27.714	1.000	50.000	80.000	99.000	100.000
GENDER	0.381	0.486	0.000	0.000	0.000	1.000	1.000
LEC	0.879	0.327	0.000	0.000	1.000	1.000	1.000
GRAD	4.025	0.245	2.000	4.000	4.000	4.000	5.000
BA	0.808	0.438	0.000	1.000	1.000	1.000	1.000
NEWS	0.363	0.482	0.000	0.000	0.000	1.000	1.000
AGE	21.338	2.295	18.000	19.000	21.000	23.000	30.000

1) 변수의 정의 :

- TRSP =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우리나라 투명성에 대한 수준;
- GRADE = 〈표 1〉에서 제시된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점수의 합계;
- GENDER = 설문대상자의 성별,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 LEC = 회계원리를 수강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GRAD = 현재 재학 중인 학년 (1-4) 및 졸업자 (5);
- BA = 경영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NEWS = 경제신문기사를 일주일에 몇 번 읽는지 그 횟수;
- AGE = 설문대상자의 나이;

〈표 5〉 Pearson 상관분석 (N=281)

	GRADE	GENDER	LEC	GRAD	BA	NEWS	AGE
GRADE	1.000						
GENDER	0.056 0.347	1.000					
LEC	0.306 〈.0001	0.089 0.138	1.000				
GRAD	-0.096 0.108	0.070 0.243	-0.364 〈.0001	1.000			
BA	0.253 〈.0001	0.024 0.691	0.445 〈.0001	-0.423 〈.0001	1.000		
NEWS	0.211 0.000	0.155 0.009	0.235 〈.0001	-0.077 0.199	0.212 0.000	1.000	
AGE	0.111 0.064	0.403 〈.0001	-0.198 0.001	0.302 〈.0001	-0.155 0.009	0.070 0.246	1.000

1) 진한 글씨(bold)는 양측 검정에 따라 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표 4〉를 참조.

졸업 여부(BA), 경제신문기사를 읽는 횟수(NEWS)와는 유의한 정(+)의 연관성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이 회계 학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GENDER)

의 경우 나이(AGE)와 유의한 정(+)의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남학생의 경우 군대로 인한 휴학과 연관이 있다. 학년(GRAD)의 경우 회계원리 수강여부(LEC)와 유의한 음(-)의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회계원리

를 듣지 않은 대학원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생(BA)일수록 경제신문을 읽는 횟수(NEWS)가 늘어났다. 가장 큰 상관계수는 경영대학 재학 및 졸업생(BA)과 회계원리 수강여부(LEC)로 0.445의 값을 갖는다. 변수 간 분산팽창계수(VIF)는 최대 1.4748로 회귀분석의 가정을 위배할 정도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다.

4.3 차이분석

〈표 6〉에서는 회계지식의 수준(GRADE)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TRSP)이 성별(GENDER), 회계원리 수강여부(LEC), 경영대학 재학 및 졸업여부(BA)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성별의 경우 회계지식의 수준(GRADE)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TRSP)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회계원리 수강여부(LEC)에 따라 회계지식의 수준(GRADE)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회계원리를 수강한 경우 회계지식의 수준(GRADE)의 평균값은 6.364인 반면, 회계원리 비수강자는 4.264로 1%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test 결과 t값은 -7.22). 이는 본 연구의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할 문항이 회계에 대한 학습결과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계투명성의 인식수준(TRSP)도 회계원리를 수강한 경우(LEC)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유의하게 낮게 평가했다(t값은 -2.31). 경영대학의 재학 및 졸업 여부(BA)의 경우에도 회계지식의 수준(GRADE)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TRSP)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경영대학 학생일수록 회계지식에 대한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t값은 -5.33), 회계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t값은 -2.48).

4.4 회귀분석

〈표 7〉은 본 연구의 가설, 즉 회계지식의 수준이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설문응답자의 회계투명성 인식수준(TRSP)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회계지식의 수준(GRADE)의 회귀계수(t값)는 3.327(4.35)로 1% 내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이 결과는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회계투명성에

〈표 6〉 회계정보인식에 대한 수준과 회계투명성 인식수준의 차이분석 (N=281)

변 수		n=281 표본수	회계지식의 수준 (GRADE)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지각 (TRSP)		
			평균	표준편차	t 값	평균	표준편차	t 값
성별 (GENDER)	여성	174	6.011	2.221	-0.94	74.896	26.557	0.56
	남성	107	6.271	2.271		73.000	29.588	
LEC	회계원리 비수강	34	4.264	1.483	-7.22***	63.970	24.462	-2.31**
	회계원리 수강	247	6.364	2.209		75.578	27.884	
BA	비경영대학	54	4.925	1.691	-5.33***	65.851	28.589	-2.48**
	경영대학	227	6.392	2.265		76.154	27.192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표 4〉를 참조.

대해 낮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IMD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로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경영자나 최고재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여 낮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은 설문대상자는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언론의 지적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되고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은 설문대상자가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기사를 접함으로써 본 연구의 설문에 회계투명성을 낮게 응답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성별(GENDER)의 회귀계수(t값)는 -6.876(-1.90)으로 10% 내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으며, 나이(AGE)의 회귀계수(t값)는 1.866(2.30)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7〉 회계지식에 대한 수준과 회계투명성 인식지각에 대한 다변량회귀분석 (N=281)

종속변수	회귀계수	t 값	Pr > t
Intercept	-12.599	-0.38	0.7076
GRADE	3.327	4.35***	< .0001
GENDER	-6.876	-1.90*	0.0584
LEC	9.246	1.58	0.1146
GRAD	5.115	0.68	0.4941
BA	1.153	0.27	0.7886
NEWS	-1.204	-0.35	0.7275
AGE	1.866	2.30**	0.0221
F value	5.42***		
adjusted R square	0.0995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표 4〉를 참조.

4.5 설문대상자들이 회계투명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

본 연구는 설문대상자에게 IMD가 평가한 회계투명성의 실제 순위를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지문은 총 5개이며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문은 다음과 같다.

- ①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부재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 ② 과거 발생한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의 규모
- ③ 법이나 제도의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 (분식회계사건에 대한 처벌의 미흡)
- ④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감사업무 시 갖추어야 할 자질(독립성)의 부족
- ⑤ 효율성 추구 및 성장중시에 따른 사회 전반의 부패

설문대상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답은 ② 과거 발생한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의 규모로 설문대상자 281명 중 197명(70.1%)이 선택했다. 그 다음은 ④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감사업무 시 갖추어야 할 자질(독립성)의 부족이었고(193명, 68.7%), 세 번째는 ⑤ 효율성 추구 및 성장중시에 따른 사회 전반의 부패였다(183명, 65.1%). ①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부재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140명, 49.8%)와 ③ 법이나 제도의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140명 49.8%)는 비율이 ②, ④, ⑤에 비해 낮았다. 이 결과는 설문대상자들이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낮다고 보는 주요 원인이 과거 분식회계사건의 큰 영향임을 의미한다. 또한 감사인의 역할이 미흡한 것과 사회투명성의 부정적인 인식이 회계투명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IMD의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낮은 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제도와 법의 지속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선행연구가 언급한 것처럼 사회구성원이 인식하는 사회투명성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 추가분석

본 연구의 가설은 검증되었지만, 설문대상자들이 언론기사 등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회계지식의 수준과 경제기사를 읽는 정도를 결합한 상호작용변수($GRADE * NEWS$)를 식 (1)에 추가했다. 이 방법은 회계지식을 가진 설문대상자들이 언론기사의 노출에 영향을 받아 회계투명성을 더욱 낮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은 그 결과이다. 설문응답자의 회계투명성 인식수준($TRSP$)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회계지식의 수준과 경제기사의 상호작용변수($GRADE * NEWS$)의 회귀계수(t 값)는 $-1.030(-0.66)$ 로 음(-)의 값을 갖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설문대상자들이 경제기사를 많이 읽음으로써 높은 회계지식과 결합하여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지 않는음을 나타낸다.

<표 8> 회계지식에 대한 수준과 경제기사의 상호작용변수가 회계투명성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N=281)

종속변수	회귀계수	t 값	Pr > t
<i>Intercept</i>	-16.792	-0.53	0.5997
<i>GRADE</i>	3.562	3.86***	0.0001
<i>GENDER</i>	-6.929	-1.92*	0.0563
<i>LEC</i>	6.545	1.08	0.2797
<i>GRAD</i>	4.909	0.69	0.4916
<i>BA</i>	5.797	1.25	0.2128
<i>NEWS</i>	5.167	0.48	0.6294
<i>AGE</i>	1.981	2.43**	0.0155
<i>GRADE*NEWS</i>	-1.029	-0.66	0.5119
<i>F value</i>	5.02***		
<i>adjusted R square</i>	0.1030		

-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표 4>를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과거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깊이 각인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IMD의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낮은 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투명성을 개선하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모에 비해 커다란 회계부정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엔론사건이 발생하고 회계개혁법안(Sarbanes-Oxley Act: SOX)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부정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번 나빠진 국제적 시선은 여전히 따라왔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할인현상을 완화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 했으나, 이후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서 대규모의 회계부정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은 다시 한 번 추락하여 2016년에 IMD기준 회계투명성 분야에서 최하위까지 하락하고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⁶⁾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낮은 회계투명성이 설문대상자의 구성과 주관적 인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며, 회계투명성을 나타내는 수치만 본다면 중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IMD나 WEF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낮은 평가로 인해 우리나라 감독규정이나 감리 등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회계

6) 2018년 하반기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에 버금가는 외감법 등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9년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은 약간 상승하였으나, 아직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정 사건이 더 두드러질 수 있으며, 언론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 발생액의 품질 등 회계투명성의 대용치들은 대부분 회귀모형을 통해 측정되며 극단치(outlier)를 완화하거나(winsorizing) 제거(truncating)한다. 하지만 대규모의 분식회계사건이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 회계부정 위험이 있는 기업들은 극단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계투명성 측정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리인력 및 기업 내 회계전문가의 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언론에 대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자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회계투명성 개선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식회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과 외부감사인,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7년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는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보고서 의무제출, 회계부정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SOX에 버금가는 강력한 회계개혁법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아무리 회계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법과 제도를 개정하더라도 대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순간, 설문대상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에게 천문학적 손실이 노출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된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은 회계부정의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은 물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투명성의 실질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많은

언론기사가들이 회계나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의 긍정적 역할을 사회 구성원에게 홍보, 전달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실무자는 물론 회계교육의 대상자에게 윤리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회계의 질적 성장도 동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계투명성과 사회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은 회계투명성과 사회투명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으므로 설문연구가 가진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표본의 대표성과 설문자의 다양한 편향이 개입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연령대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식이 편향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대상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지가 진위형으로 단순하며 문항수가 적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회계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난이도를 반영하여 문항의 수를 확대하고 진위형에 객관식 문항을 추가하여 질문지를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나 IMD의 설문결과로 측정된 회계투명성이 국가의 진정한 회계투명성 수치를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MD의 설문결과와 회계지식의 수준에 의해 회계투명성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계지식의 수준이 높은 경영자나 감사인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회계투명성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로 회계투명성을 측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회계지식의 수준과 기업의 투명성 측정치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추정하였던 회계지식의 수준과 회계투명성의 부정적 인식의 연

관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의 재발 방지와 사회투명성의 제고를 동반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는데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lbrecht, W. S. and R. J. Sack(2000), "Accounting education: Charting the Course Through a Perilous Future," *Journal of Accountancy*, 193(4), 84-85.
- Angluin, D. and R. W. Scapens(2000), "Transparency, Accounting Knowledge and Perceived Fairness in UK Universities' Resource Allocation: Results from a Survey of Accounting and Finance," *British Accounting Review*, 32, 1-42.
- Bhattacharya, U., H. Daouk, and M. Welker(2003), "The World Price of Earnings Opacity," *The Accounting Review*, 78(3), 641-678.
- Ball, R(2006),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Pros and Cons for Investo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36, 5-27.
- Dhaliwal, D., V. Naiker, and F. Navissi(2010), "The Association Between Accruals Qu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Experts and Mix of Expertise on Audit Committ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7(3), 782-827.
- Guidry, F., A. J. Leone, and S. Rock(1999), "Earnings-based Bonus Plans and Earnings Management by Business-unit Manager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6(1-3), 113-142.
- Healy, P(1985), "The effect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7(1-3), 85-107.
- Healy, P. and K. Palepu(2001),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Disclosure, and the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 Empirical Disclosur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1-3), 405-440.
- Lee, C(2001), "Market Efficiency and Accounting Research: a Discussion of 'Capital Market Research in Accounting' by S.P. Kothari,"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1-3), 233-253.
- Soll, J(2014), "The Reckoning: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the Making and Breaking of Nations," Allen Lane, Penguin.

국내참고문헌

- 강나라, 최관(2020), "지난 20년 우리나라 회계보고의 투명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회계학연구*, 45(1), 111-146.
- 구승환, 장성용(2012), "기본적 분석방법을 통한 주식 투자 전략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 *경영과학*, 29(2), 53-64.
- 권상호, 유상열, 황준성(2014), "회계지식과 정보이용도가 회계정보에 대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5(6), 117-142.
- 김상욱, 김석호, 김소임, 김종수, 김지범(201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서울
- 노정희, 최중서(2016), "IMD 회계투명성 지수에 대한 회계학적 평가," *산업경제연구*, 29(6), 2539-2557.
- 박종성, 이은철(2003), "회계제도의 개선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회계학연구*, 28(2), 105-134.
- 손혁, 오명전, 한종수, 박종성, 조성연(2019), "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이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및 실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회계저널*, 28(5), 157-199.

- 심호식, 이우중, 이재경, 한승엽(2016), “회계투명성의 국가 간 비교 및 자본비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8(2), 41-81.
- 이호영, 박현영, 이영한(2013), “회계투명성과 자기자본비용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한국회계학회의 회계투명성평가지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2(6), 219-252.
- 장용운(2009), “전산회계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23(2), 1-23.
- 장지인, 배길수, 전영순(2002),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조명,” **회계저널**, 11(3), 1-36.
- 정도진, 남혜정, 송인만, 이갑재, 이창우(2010),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평가,” **회계와 감사연구**, 10(2), 327-353.
- 최중서(2017), “우리나라의 회계제도개혁과 회계투명성 역설,” **한국부패학회보**, 22(3), 77-106.
- 최은실, 유용근, 정혜연(2014), “재무회계정보 해석에 있어서의 재무분석가 목표주가와 주식가격 간 체계적 편이의 비교분석,” **회계저널**, 23(1), 33-59.

Accounting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ransparency

Hyuk Shawn* · Soon-kyung Kang** · Tae-young Pai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accounting knowledge and percep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The questionnaire measuring the level of accounting knowledge is prepared in a simple and clear way so as to be replied without learning accounting, and consists of questions that can test basic knowledge in the areas of financial accounting, internal control, and auditing.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are proxied by perceived international ranking in the questionnaire. We collect data of the total of 281 samples in 2017, and analyze the results with regression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ccounting knowledge of the survey participants averaged 6.11 out of 10 and there was the biggest misunderstanding about the unqualified opinion of the audit report among the questions. Second, the global ranking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was perceived 74th out of 100 from the top. Third, the students with better basic accounting knowledge, accounting principles taken, and more interest in economic news evaluated Korean accounting transparency more negatively. Fourth, the subjects pointed out repeated large-scale accounting frauds and insufficient monitoring of external auditors as the reasons for low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showing that accounting educ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Key Words: Accounting education, Accounting knowledge, Transparency, Questionnaire research

* Associate Professor, Business School, Keimyung University, First Author

** Ph.D. Keimyung University,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administration office education committee. Co-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